

빙속 팀 스프린트 김준호·차민규·조상혁 '은빛 질주'



김준호, 500m·100m 동메달...하얼빈서 3번째 메달 획득
강동훈, 스노보드 빅에어서 동...여자 컬링팀 예선 3연승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메달 레이스 사흘째인 10일엔 금메달은 추가하지 못한 채 스피드 스케이팅과 스노보드에서 은메달 하나와 동메달 2개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이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스노보드에서 동메달 하나를 획득해 이번 대회 개막 이후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를 따냈다.

한국은 금메달 21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5개를 수확한 개최국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지켰다. 3위는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의 일본이다.

김준호(강원도청)와 차민규(동두천시청), 조상혁(스포츠포토)은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오벌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 스프린트에서 중국(1분 19초 22)에 이어 2위(1분 20초 48)로 달려 은메달을 함작했다.

팀 스프린트는 단거리 전문 선수들이 출전하는 단체 종목으로, 3명의 선수가 400m 트랙을 3바퀴 도는 경기다.

중국, 한국에 이은 동메달은 일본(1분 20초 72)에 돌아갔다.

김준호는 앞서 열린 남자 500m에서는 35초 03의 기록으로 가오팅위(중국·34초 95), 모리시게 와타루(일본·34초 97)에 3위로 마쳐 동메달도 챙겼다.

김준호는 8일 100m 동메달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태훈(서울시청)은 8위(35초 22), 조상혁(스포츠포토)은 10위(35초 26)에 올랐다.

여자 3000m에서는 박지우(강원도청)가 5위

(4분 16초 82), 강수민(서울시청)이 7위(4분 20초 50), 정유나(한국체대)가 11위(4분 27초 68)로 결승선을 끊었다.

4분 08초 54로 우승한 양빈위를 필두로 중국 선수들이 이 종목 메달을 독식했다.

스노보드 빅에어의 강동훈(고리고)은 아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스노보드 빅에어 결선에서 158.75점을 얻어 양원룡(193.25점)과 장신제(160.25점·이상 중국)에 이어 3위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강동훈은 8일 남자 슬로프스타일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동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스노보드는 2006년 생 김대기인 이재운(수리고)과 강동훈이 슬로프스타일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강동훈이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빅에어는 하나의 큰 점프대를 도약해 공중 기술을 선보이는 경기이며, 슬로프스타일은 다양한 기물과 점프대로 구성된 코스에서 높이, 회전, 기술, 난도 등의 기준에 따라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종목이다.

여자 빅에어에 출전한 유승은(성북고)은 119.25점으로 4위, 최서우(용현여중)는 5위(85.25점)로 마쳤다.

이 종목에서는 송시우(164점)가 우승을 차지했고, 장사오(156.75점·이상 중국)와 이시모 토스즈카(일본·134.50점)가 뒤를 이었다.

크로스컨트리 남자 10km 프리에서는 변지영(경기도청)이 11위(22분 16초 5)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정종원(부산시체육회·22분 26초 1), 이진우(경기도청·22분 55초 4), 이준서(단국대·22분 56초 3)가 각각 12~14위에 자



10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스프린트에 출전한 김준호, 차민규, 조상혁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했다.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여자 컬링 대표팀은 평양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라운드로빈 경기에서 태국을 14-0으로 완파했다. 대회 첫날인 전날 대만과 일본을 연이어 꺾은 여

자 컬링 대표팀은 예선 3연승을 달렸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하얼빈 아이스하키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조별 예선 A조 최종 5차전에서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강호 카자흐스탄에 1-2로 역전패했다.

이번 예선에서 4승(연장 1승 포함) 1패로 승점 11을 쌓은 한국은 5전 전승의 카자흐스탄(승점 15)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남자 아이스하키는 11일 8강전을 시작으로 14일까지 토너먼트를 통해 메달 주인공을 가린다. /연합뉴스

전남 바이애슬론 예카테리나, 대한민국 역대 최고 성적 경신 도전

여자 스프린트 7.5km 출전

전남 바이애슬론 소속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7.5km 경기에 출전한다.

경기는 11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하얼빈 바이애슬론센터(아부리 스키 리조트)에서 열린다.

30초 간격으로 출발하는 경기에서 예카테리나는 두 번째 순서로 코스에 나서며, 크로스컨트리 스키 주행과 두 차례의 사격(각 5발)을 수행한다.

사격에 실패할 경우 1발 당 150m의 페널티 코스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격이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예카테리나는 지난 2023-2024 시즌 사격 적중



률 77%를 기록했다. 러시아 벨리키우스트루크에서 태어난 예카테리나는 2016년 대한민국으로 특별 귀화했으며, 2018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바이애슬론 여자 15km 개인전에서 16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여자 선수로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후 전국동계체전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2022년 2관왕(스프린트 7.5km·개인 12.5km), 2023년과 2024년에는 3관왕(스프린트 7.5km·개인 12.5km·혼성계주)을

차지했다. 전남 바이애슬론팀 김상욱 감독은 "예카테리나는 훈련 목표가 뚜렷하고 성실성이 뛰어난 선수다"라며 "바이애슬론 스프린트는 속도와 사격 안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심적인 경기로, 기량을 평가하는 데 최적화된 종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카테리나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한국 바이애슬론의 위상을 높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기에는 고은정, 아베마리아, 정주미 등 한국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출전해 경쟁을 펼친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남자 스프린트 10km 경기에는 최두진, 강운재, 김성운, 허선화가 나선다. /김진아 기자 jinggi@

페퍼스, 현대건설 잡고 '10승·5위 수성' 노린다

V리그 2월 2주차 관전 포인트

페퍼스, 14일 현대건설과 경기 '완전체' 흥국생명, 1위 굳히기

2024-2025시즌 V리그 5라운드를 순항 중인 프로여자배구단의 새로운 한 주에서는 흥국생명의 '연승 잇기'와 페퍼스의 '10승 달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 흥국생명은 웃고 페퍼스는 울었다.

이날 '선두'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54일 만에 코트 위로 복귀한 외국인 주포 투트쿠의 활약에 힘입어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를 세트 스코어 3-0으로 제압했다.

이날 승리로 7연승을 질주한 흥국생명은 22승 5패·승점 64로 1위를 굳건히 했으며, 2위 현대건설(17승 9패·승점 53)과의 격차는 승점 11로 벌어졌다.

'선두' 흥국생명의 연승행진은 이번 주 최대 관심사다. 돌아온 투트쿠의 활약에도 시선이 쏠린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 17일 정관장에서 투트쿠가 왼쪽 무릎 힘줄 파열로 이탈하면서 크게 흔들렸고, 2위 현대건설에 승점 1점 차까지 쫓기

도 했다. 앞선 페퍼전전을 통해 부상에서 복귀한 그는 이날 팀 내 최다 16득점, 공격 성공률 61.61%를 기록하며 '완벽한 귀환'을 알렸다.

'개막 14연승' 멤버 완전체로 뭉친 흥국생명이 다시금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흥국생명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안방인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7위' GS칼텍스 서울Kixx를 상대로 연승 잇기에 나선다.

흥국생명에 맞혀 창단 첫 주릿수 승수 달성에 실패했던 페퍼스는 이번 주 '10승'을 목표로 한다.

앞선 경기 결과는 셋아웃 패였지만, 페퍼스는 마지막 세트 12-15에서 6연승 특점으로 경기를 뒤집는 저력을 보였다. 외국인선수 테일러도 3세트에서만 13득점(공격 성공률 66.67%)을 올리는 등 흥국생명을 긴장시켰다.

특히 경기 초중반 부진했던 테일러와 교체 투입된 박경현이 1세트에만 100%의 공격성공률을 보이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셋아웃 패배에도 희망을 남긴 페퍼스는 14일 오후 7시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첫 10승 달성과 5위 수성을 동시에 노린다.

현재 5위(9승 18패·승점 27)에 자리한 페퍼스는 6위 한국도로공사(9승 17패)에 승점 1점 차로 쫓기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오늘 개막...광주·전남 6개종목 105명 참가

전국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겨울 축제가 11일 막을 올린다.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오는 14일 까지 강릉 컬링센터를 포함한 강원 일원의 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알파인스키·스노보드·크로스컨트리 스키·바이애슬론·아이스하키·컬링·빙상(쇼트트랙) 7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지적장애·시각장애·지체(발달)장애·청각장애 등 장애 구분에 따라 17개 사·도 1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광주·전남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출전해 선의의 경쟁에 나선다.

광주에서는 빙상과 컬링 등 2개 종목에 총

28명(선수 13명·임원 및 지도자 15명)이 참가한다.

앞서 지난 8·9일 치러진 남자 빙상 500m와 1000m 사전 경기에 나선 윤좌현(IDD·지적)은 5위를 기록했고, 컬링 4인조 DB(청각) 남녀부는 지난 7일 16강에서 아쉽게 도전을 마무리했다.

광주는 오는 13일 혼성 휠체어컬링 4인조 WC-E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남에서는 알파인스키·크로스컨트리 스키·바이애슬론·아이스하키·컬링·빙상(쇼트트랙) 등 6개 종목에 총 77명(선수 36명·임원 및 지도자 41명)이 출전을 알렸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남은 유승협(IDD)이 지난 8·9일 남자 빙상 500m와 1000m 사전 경기에서 각각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고, 박정철(한전KPS-DB)도 같은 종목에서 각각 3위를 기록해 총 4개의 메달(은 1·동 3)을 획득했다.

지난 2024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혼성 휠체어컬링 팀과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최재형이 대회 2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회 개최식은 11일 오후 4시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리조트에서 열린다. 이번 개최식은 G1 방송과 유튜브 채널 'G1 방송'을 통해 동계체전 최초로 생중계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